

54번째, 농기구이야기

낱알을 떨어낼 때 사용한 농기계

‘탈곡기’



(탈곡기 © 농업박물관)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3. 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형태 및 사용 방법

벼 · 보리와 같은 곡식을 탈곡하는 연장이다. 처음에는 ‘회전식 도급기’라고 불렀으나 발로 밟는 탈곡기라는 의미로 ‘족답식 탈곡기’라고도 부른다. 농가에서는 탈곡기가 돌아갈 때 나는 소리를 따서 ‘와랑’ 또는 ‘호롱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통이 구른다고 해서 ‘궁글통’이라 불렀다. 탈곡기는 우리나라 농기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계를 움직여서 그 힘을 쓰는 것으로, 1900년대 초기 일본에서 도입된 연장으로 해방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탈곡기의 형태는 지름이 40~50cm 되는 원통에 말굽쇠 모양으로 구부린 철사(사진1)가 촘촘히 박혀 있고 이와 연결된 발판(사진 2)을 밟으면 원통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원리이다. 빠른 속도로 회전되는 원통에 벼단을 내리면 촘촘히 박힌 철사에 치여 알곡이 떨어진 다.



(사진 1. 탈곡기 세부모습-말굽형철사 ©농업박물관)



(사진 2. 탈곡기 세부모습-발판 ©농업박물관)

보통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탈곡을 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탈곡기를 밟고, 한사람이 벃단을 준비하고 애벌떨이를 하면 다음 사람이 벃단을 받아 마저 떤다. 그러나 일할 양이 많지 않거나 사람이 부족할 경우, 혼자서도 가능하다.

2. 탈곡 도구의 발달

탈곡기가 등장하기 이전, 우리 조상들은 홀태와 개상 등으로 곡식을 털었다. 옛날에는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탈곡도구를 만들었다. 벼를 훑어 내는 농기구로, 벼훑이라고도 하며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가락홀태’라고도 하였다. 또한 나무로 된 벼팀대 위에 쇠로 만든 큼직한 빗을 붙인 것으로 ‘홀태’(또는 그네, 사진 3)가 있다. 홀태는 가락홀태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의 벼를 탈곡할 수 있다. 홀태와 같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통나무를 여러 개 나란히 붙여 밑에 다리를 달아 의자처럼 만든 개상도 있다. 홀태가 혼자서 사용하는 탈곡도구였다면, 개상은 기다란 통나무에 두세명이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후, 족답식 탈곡기를 거쳐 현재의 동력회전탈곡기 뿐만 아니라 벼를 수확하는 동시에 탈곡 및 선별작업까지 가능하도록 한 콤바인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 3. 홀태 ©농업박물관)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한국농기구도감』

박호석, 2004, 『한국의 재래농기구』

보리출판사, 2009, 『겨래 전통 도감-농기구』